

엘레인 필립스 박사, 역사지리학 개론: 4강 - 평원과 세펠라

이 영상은 엘레인 필립스 박사가 이스라엘 평원과 세펠라 지역에 대한 역사 지리학 첫 강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필립스 박사와 그녀의 남편 페리는 예루살렘 대학교와 고든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엘레인 필립스 박사.

우리는 역사지리학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강의에서 살펴본 것 중 하나는 이곳이 바로 '중간 땅'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이 중간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안겨준 외부의 영향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기 위해 이러한 외부 세력들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외래 문화의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펠라 지역을 살펴보고, 지도를 살펴본 다음, 북쪽으로 이동하여 페니키아가 북왕국에 바알 숭배라는 무시무시한 위협을 어떻게 들여왔는지, 특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아람으로 기록된 시리아 북동쪽에서 오는 위협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로마 제국의 카이사레아가 이 땅에 미친 영향, 즉 로마-그리스-로마 문화의 영향과 복음이 전파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주요 세력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땅이었던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뿌리내리면서 믿음을 시험받는 장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정착했던 산악 지대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산악 지대에 정착했고, 예루살렘은 바로 이 산악 지대 한가운데, 훨씬 더 고립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더욱 안전했습니다. 또한, 특히 백성들이 순종적일 때는 농사가 잘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그들은 변방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험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 저 아래 흰색 타원형으로 표시된 블레셋 평야를 살펴보고, 블레셋 평야 바로 동쪽에 있는 세펠라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평야 지대입니다. 특히, 구릉 지대로 들어가기 전의 산기슭이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언급했듯이 세펠라는 히브리어로 ' 낮은' 또는 ' 축소된'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산기슭, 특히 이 구릉 지대의 서쪽 산기슭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완충지대가 됩니다. 우리는 완충지대라는 용어에 익숙합니다. 해안 평야, 특히 이스라엘 정착 초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 그들은 산악 지대에 정착한 사람들 에게 위협적 이었고, 완충지대는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면 그 완충지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그들 도 완충지대를 넘어 진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마리아, 특히 북왕국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파란색 사각형 안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그 지역의 주요 세력이었고, 바알 승배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티레와 시돈은 그 맥락에서 중요한 도시이며, 그 사이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요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동쪽에 위치한 시리아입니다 . 그들은 항상 외딴 도시 길르앗에 집중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도시를 방어하려 했기 때문에 길르앗은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와 그 이후에 로마인들이 가이사랴에 발판을 마련했던 것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양한 방식으로 외세의 영향력에 맞서 싸운 네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 블레셋 평원과 세펠라 지역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곳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성읍입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가자는 남쪽 해안 평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아슈글론이 있습니다.

아슈도드는 내륙으로 약간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여러 중요한 이야기 속에서 이 도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세펠라 산기슭 지역 바로 가장자리에 가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에크론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서 언급될 것이므로 ,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붉은 선들이 보이는데, 이는 육로를 통과하는 국제 노선의 두 갈래를 나타냅니다. 해안 노선은 가자, 아슈켈론 , 아슈도드를 지나 아페크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산기슭을 따라 뻗어 있는 내륙 지선도 있는데 , 보시다시피 이 길은 가트와 에크론을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 도시들은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도시들이며,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5대 도시 연맹인 펜타폴리스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외래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건너편에서 온 민족 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더 높은 수준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에게 매력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삼손과 그의 이야기를 통해 블레셋 문화에 매료된 그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훨씬 더 국제적이고 강력한 지역인 그곳은, 앞으로 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지 못한 선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것을 일종의 문화적 충돌로 생각해 보세요 . 비교를 하자면, 뉴욕시 지역과 동부 해안 전체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 버몬트, 뉴햄프셔, 또는 뉴욕 북부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지역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블레셋 지역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당연히 산악 지대로 올라갈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 오늘날에는 차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면 어떻게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겠죠.

당시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산악 지대의 험준한 언덕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천연 방어벽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입하기 쉬운 특정 경로들이 있었는데, 바로 세펠라 지역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일련의 계곡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계곡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계곡들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세 개의 계곡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계곡들은 우리가 다룰 몇몇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알론 계곡입니다. (읽는 문헌이나 번역본에 따라 아이알론으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이 계곡에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곡 각각 에 관해서 말입니다 .

이 도시들은 여러 면에서 방어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알론 골짜기의 주요 도시는 게셀이며, 이 도시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오늘 이야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 앞으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게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셀은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게제르는 일종의 교차로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북으로 뻗은 국제 도로를 따라 북쪽에서 산악 지대로 들어가려면 게제르에서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게제르는 중요한 교차로가 되며, 이곳에서는 여러 중요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시기 이후 수년이 지나 솔로몬이 왕국을 물려받았을 때, 그가 요새화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게셀입니다. 솔로몬은 게셀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 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게셀은 중요한 도시입니다. 블레셋 평원에서 구릉 지대로 이어지는 통로인 계곡들을 남쪽으로 살펴보면 소렉 계곡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상, 이 지역에는 다른 중요한 도시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선 팀나와 베이트세메시 두 도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팀나는 바로 이쪽에 있고, 베이트세메시는 이쪽에 있습니다. 팀나는 여기서 조금 더 서쪽에 있고, 베이트세메시는 더 동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므로, 이 도시들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가까워 보이지만 문화적 영향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의 중심이 될 세 번째 계곡은 엘라 계곡이라고 불리며, 이곳에서 주목할 중요한 도시는 바로 아제카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엘라 계곡에서 펼쳐지는데, 아제카라는 도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의 도시들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악 지대로 향하는 길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세벨라 지역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가 삼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보시다시피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외세 위협에 대처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 특히 그들이 왕국을 세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블레셋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사건의 배경을 마련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와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삼손은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실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으므로, 삼손도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가 맡은 이 모든 사명에 대해 알게 됩니다. 13장은 여호와와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이자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나실인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엄격하게 제한된 생활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죽음 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었으며, 포도로 만든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삼손은 이러한 서약의 대부분을 어겼고,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상 그 부분에 크게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그 배경을 알아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조라 마을 출신의 삼손이 단 지파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단 지파의 영토는 원래 이 해안 평야와 산악 지대 사이의 지역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일부는 나중에 사사기에서 이주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시점에 여기에 있고, 삼손은 조라 출신입니다. 조라는 팀나보다 더 동쪽에 있습니다. 팀나는 저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손이 팀나로 내려갔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블레셋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걸으로 보기에 더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유혹당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가르칠 때 우리가 종종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걸으로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끌릴 때 개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삼손의 경우, 그의 몰락은 블레셋 여자들에 대한 유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팀나 출신이었다. 그가 그곳으로 내려가자 부모님은 다소 경악했지만, 그는 "저기 여자가 있어요. 저는 그녀를 원해요."라고 말했다.

그의 부모는 왜 착한 유대인 여자,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결혼을 요구했고, 결국 부모는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사사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인간의 최악된 본성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삼손에게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그는 적국 블레셋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초래합니다. 그는 여우 꼬리를 묶어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곡식밭을 불태웠습니다. 삼손은 복수심을 이용하여,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복수심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의 전개 과정입니다. 하지만 슬픈 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 때문에 그가 그녀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14장 끝부분에 나오는 긴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다시 찾아갔을 때, 그녀는 그가 사건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함께했던 동료 중 한 명에게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처와 처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매우 추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들과 당시 문화에 이끌려 블레셋 땅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지도에서 보이는 곳보다 훨씬 더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가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창녀를 만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코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밤중에 그를 잡으려 할 때, 삼손이 일어나서 성문과 빗장을 떼어내 헤브론까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가사는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이고, 헤브론은 해발 약 760미터(2,500피트)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뛰어난 신체적 능력과 신이 주신 비범한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은 생애 말년에 이르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사를 떠나 수락 골짜기로 향하는데, 가사는 지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가 고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들릴라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삼손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삼손은 그녀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덮쳐 머리카락을 자르고 포로로 잡아 가사로 끌고 갑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신전에서 신 앞에 서서 "하나님, 제 눈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복수의 영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을 내리십니다. 그 시점에 그 성전에 모여 있던 사람들.

그래서 삼손의 삶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이고 복수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통해 역사하셨는지라는 점에서 수수께끼입니다. 또한, 지리적 배경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충돌과 대조를 아주 작은 지역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계속해서 세펠라 지역에 머물겠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을 다루기 위해 조금 북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아니 4장부터 6장까지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는데, 바로 이곳 산악 지대입니다. 산악 지대는 고립되어 있고, 보호되고, 방어하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언약궤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안전한 곳인 실로에 있었고,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큰 침략이 일어납니다. 여기 화살표를 따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펙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은 국제 해안 항로의 서쪽 지선과 동쪽 지선이 만나는 지점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펙을 보면 바로 여기 야르콘이 보이는데, 저것이 야르콘 강입니다. 따라서 군대나 상업 시설 등을 그 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펙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아펙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펙에 진을 쳤고, 아펙의 블레셋 사람들과 에벤에셀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일련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특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모든 것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제가 위 괄호 안에 적어 놓은 것처럼,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롭고 위엄 있는 임재에 대한 인식을 깎아내리고, 그것을 마치 마법의 도구처럼 사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히 억측이며, 실제로 그들은 아펙과 에벤에셀 지역에서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곳에서 큰 충돌이 벌어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돗으로, 그 다음에는 가드로, 마지막으로 에크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야기들을 떠올려보면, 언약궤는 블레셋 문화의 중심지인 아스돗으로 먼저 옮겨졌습니다. 그곳의 성전에 안치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하나님 다곤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듯이 다곤이 쓰러져 부서졌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분명히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끔찍한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먼저 가드로, 그 다음에는 에크론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마치 천천히 본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각 도시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제사장 과 점쟁이에게 자문을 구하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속죄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에크론에서 언약궤가 조렉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서 앞서 이야기했던 팀나를 지나고, 모퉁이를 돌아 베이트세메시에 도착한다는 점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베이트세메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경 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이트세메시는 단 지파와 삼손이 살던 시절 조라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국경, 경계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조렉 골짜기를 따라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만약 그 수레가, 송아지를 낳은 암소들이 끄는 것이라면,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언약궤가 베이트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언약궤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고, 이는 그들의 안녕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는 지리적 요인과 그 작용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산악 지대는 방어하기 쉽고, 고립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경배할 장소이므로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시거나,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주는 것을 통해 백성들이 이것을 다시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렉 골짜기에서 엘라 골짜기로, 남쪽으로 한 걸음 더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일 텐데, 작고 젊은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쁨 부음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왕권은 여전히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지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

자 , 우선 여기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언덕 지대에 바로 있죠 . 다윗 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형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가 있는 동안 양 떼를 치고 있었고,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라 골짜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역의 산악 지대로 올라가는 주요 통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산악 지대를 그토록 선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앞서 말했듯이 농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포도나무와 포도밭이 있어 맛있는 와인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 세펠라 지역에도 올리브 나무가 있지만, 산악 지대만큼 생산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버지 제시가 다윗을 전투 또는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보내 형제들의 상황을 살펴보려 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베들레헴이 상당히 취약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스라엘 군대는 산악 지대의 정착촌들을 방어하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소코와 아제카 사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산악 지대와 세펠라 지역 사이, 산악 지대가 시작되는 경계 어딘가일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는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싸웠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였죠.

우리는 이야기들을 통해 사울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거구였고, 그와 싸워야 할 사람은 사울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한 사람이 나와 싸우게 하라"고 도전했을 때, 사울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의 형들은 그에게 화를 내지만, 다윗은 곧 문제의 원인을 알아냅니다. 그는 가서 돌 다섯 개를 집어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중 하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일관되게 언급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골리앗과 대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아제카의 터이며,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이렇게 개 꺾이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가 이 지역에서 다시 위로 솟아오릅니다. 저 작은 위성 안테나를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에 있었고 이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평선 너머로 유대 땅이 보이고, 저기 길게 뻗은 산등성이가 보이는데, 베들레헬은 바로 이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제카에 서 있고, 소코가 이쪽 언덕이라고 한다면, 블레셋 군대는 골짜기의 이 특정 구간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벌어졌던 장소,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골리앗을 물리친 장소를 꽤 잘 알 수 있습니다 .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엘라 골짜기를 빠져나와 가드까지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서쪽으로 이동한 것이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과 해안 평야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를 조금 더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세력,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던 해안 평야 지역에서의 첫 번째 대립 양상은 일단 마무리됩니다 .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대립 양상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 즉 북왕국 분열 시대에 북왕국과 페니키아의 위협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왕국이 분열된 후, 여러 왕조가 생겨납니다.

오래가지 못하죠. 마침내 옴리라는 장군과 그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수도 위치가 이전까지는 다소 불안정했지만, 옴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처음에는 세겜 지역에 있었고 , 잠시 티르자로, 또 잠깐 이쪽 지역으로 옮겨갔었는데, 이제 사마리아로 완전히 이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도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리를 살펴볼 때 도움이 되는 점 중 하나는 옴리가 서쪽으로 조금만 이동함으로써 사실상 서구 문화를 더욱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훨씬 더 개방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이용하면 자동차나 배 같은 교통수단으로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육지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탁 트인 저지대 구릉지대가 훨씬 접근성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의 영향을 받아들이기 위해 의도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서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우리의 아들 아합은 페니키아 공주, 바로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은 함께 정말 간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북왕국의 종교를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왕국 분열 이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 등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적어도 여호와 숭배의 형태를 띠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바알은 기원전 654년 부터 존재해 왔으며, 선지자 엘리야는 페니키아 지역에서 유입된 바알 숭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들을 과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티레 와 시돈은 우리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 카르멜 산을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바알 숭배는 국가 종교입니다

북쪽의 페니키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작은 지도에서 벗어나 있지만, 사마리아는 시리아의 정치적 위협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페니키아는 비록 아셀 지파처럼 이 지역에 토지를 상속받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높은 산맥인 카르멜 산은 페니키아와 북이스라엘 왕국 사이의 지정학적 경계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정치적 경계로서의 역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가까울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몇몇 곳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언덕의 아크로폴리스 지역 전체에는 여러 신전과 주요 왕실 시설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헤롯이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세운 신전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그 기초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상, 그리고 사실 지난번 중앙 경기장을 살펴볼 때도 보았듯이, 우리는 이 이스라엘 성채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북왕국 왕족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유물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니키아산 상아 조각품들이 많이 출토되었죠. 이는 그들이 페니키아 문화를 상당히 수용했음을, 심지어 예술 작품들까지도 포함하여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깊이 뿌리내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상당히 극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와 약칭인 '엘리'가 나오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만으로도 언약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자, 이전에는 확신하지 못했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중해로 튀어나온 카르멜 산의 곳을 보면, 지질학적으로 어떤 종류의 암석이 있는데, 이 암석은 풍화되는 것이 아니라 풍화되어 좋은 토양, 정말 훌륭한 토양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가 높아 강수량도 많아 아름답고 무성한 식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열왕기상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아모스와 나훔은 갈멜 산꼭대기가 시들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어 버리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원래 매우 무성하고 생산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어 버린다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면, 엘리야는 먼저 동쪽으로 향했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페니키아로 들어가 잠시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이는 바알에게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내려와 바알의 예언자들과 엘리야 예언자 사이에 대결이 성립되었을 때, 엘리야는 대결 장소를 갈멜산으로 정했습니다. 갈멜산은 대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이 폭풍과 천둥, 즉 비와 농업 생산성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에 빠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산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강해졌는데, 바알과 그의 배우자가 함께 교미하는 것이 풍요와 비등을 가져다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매우 추악한 형태의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에 맞서고 있는데, 이 장면은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갈멜산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고, 구름이 갈멜산 위로 몰려오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알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 중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바알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삼 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여 물을 가져다가 제물에 붓고 여호와께 불을 내려달라고 간청하여 제물을 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13장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이 예언자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 북동쪽에 이스라엘 골짜기 전체를 가로지르며 지중해로 흘러가는 기손 시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선지자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북왕국을 뒤엎었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침식도 그 과정의 일부였죠. 침식된 물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엘리야가 한동안 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기도하는 동안, 그의 어린 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로 도망쳤습니다.

아합이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할 때, 엘리야가 그를 뒤쫓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는 다시 시내산 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 언약의 근원인 호렙산, 시내산, 바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시킬 세 가지 일이 더 있다.”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일 중 하나는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는 것인데, 엘리사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

그러니 그 연결고리를 잊지 마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예언자적 사명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적어도 사역의 일부 기간 동안은 갈멜산에 근거지를 둘 것입니다.

경치 면에서 볼 만한 흥미로운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르멜 산 정상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름다운 카르멜회 수도원이 있고 , 엘리야 동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는 키손 개울이 흐르는데, 이 개울은 주요 도로 바로 옆, 갈멜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멜산 북쪽의 아코 만 건너편으로 지중해로 뻗어 있는 우리 곳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침 이 지점에는 커다란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페니키아의 위협이나 서쪽에서 벌어지는 외국의 영향력 다툼은 잠시 접어두고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 동부 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잠깐 보면 다마스쿠스가 있고, 따라서 시리아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길르앗이라는 지역인데 , 이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딴 곳이라는 말은 높은 곳을 의미하므로, 이곳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르앗은 이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이곳은 길르앗의 고지대이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외딴 길르앗을 지나 다마스쿠스로 이어지는 트랜스요르단 고속도로가 있는데, 다마스쿠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지역으로 향하는 온갖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트랜스요르단 고속도로가 바로 이곳을 따라 지나갑니다. 이 도로는 상업과 군사 활동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 이 지점은 주요 교차로이기도 합니다. 앞서 게제르에 있는 교차로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여기는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교차로이며, 이즈레엘 너머의 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딴 길르앗 지역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핵심 지역입니다. 시리아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외딴 길르앗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아람인들, 즉 다마스쿠스에서 온 시리아인들과 북쪽 사마리아 왕국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외딴 길르앗에서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르단 강 동쪽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아합과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합이 이세벨, 바알 선지자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의 왕으로 계속 통치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된 대로, 아합은 어느 시점에 남쪽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 동맹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당시 아합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이야기가 외딴 길르앗 지역에서 펼쳐진다는 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아합 일행은 바로 그 길르앗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예언자가 아합에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을 왕으로 내세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아합은 누군가의 총에 맞아, 소위 '우연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시리아군에게 쫓기지만,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목숨을 건져 탈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례는 외딴 길르앗에서 벌어진 대결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조금 더 후대에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음리와 같은 인물인 예후, 즉 군대 사령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장군이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 또한 군대 사령관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딴 길르앗에서 싸우던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특정 지역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 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 예후 이야기 에는 많은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당시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그의 친척인 남왕국 아하시야가 부상을 입고 이스르엘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예후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예언자,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르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합의 남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처리하실 것입니다 . 다시 말해 ,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아합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유대인들,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외국의 영향 과 접촉하게 되는 마지막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로마의 카이사레아입니다. 먼저 ,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블레셋 평원이 아니라 해안 평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안 평야 중에서도 샤론 평야라고 불리는 지역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가이사랴를 건설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로마 원로원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헤롯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백성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듯 건축 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그 충성심을 표현했습니다 . 갈릴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헤롯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지금은 헤롯이 로마의 꼭두각시 왕으로서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엄청난 규모의 건축 사업을 벌였다는 점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처럼 전쟁에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꼭두각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돈을 건축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헤롯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흔적 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물론 우리 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누구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헤롯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 모든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강의를 들으셨듯이, 헤롯은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 단지를 세웠고, 곳곳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는 갈릴리에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가이사라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곳인데, 헤롯이 거의 낙후된 지역으로 여겼던 유대에 로마 문화를 들여올 관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를 낙후된 지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역시 삼손처럼 국제적인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를 발전시켜 로마 문화를 도입하고 유대의 수준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백지 상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곳은 스트라토스 타워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하지만 헤롯은 그곳을 완전히 새로 건설했다.

짓고, 극장을 만들고, 물을 공급하는 수도까지 건설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핵심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의도는 낙후된 지역에 문화를 들여오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180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이 가이사라를 시작으로 지중해 전역과 로마 제국으로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를 살펴보면 헤롯 아그리파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헤롯의 후손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그리고 남쪽의 아르켈라우스 등이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 후 아그리파가 잠시 다시 왕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요세푸스가 헤롯 아그리파에 대해 전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 돌무덤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

우리는 누구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걸까요? 헤롯의 가이사라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 여기 헤롯이 건축한 아우구스투스 와 로마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린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서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기초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상적인 복원입니다.

하지만 도시가 서쪽을 향하고 있었던 이유는 헤롯이 가이사라 사람들에게 이 도시가 후원국인 로마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해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생각에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전 옆에는 거대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항공 사진을 보면 그 일부를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을 발굴해 보니 항구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다소 과장일 수도 있지만, 로마군, 아니, 로마 함대가 이 항구에 정박할 수 있었다고 요세푸스가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구 입구가 이쪽에 있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는데, 남서풍이 주로 불어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기둥 위에 거대한 조각상 두 개가 서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헤롯이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모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에도 훌륭한 등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곧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항구 시설 외에도 헤롯의 카이사레아에는 지중해로 튀어나온 곳 위에 세워진 궁전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궁전이었어 .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서 육로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야. 아마도 내가 카이사레아 감옥에 갇혔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겠지.

그곳은 바로 이 궁전 지역, 이 근처였을 겁니다. 헤롯 왕은 경마장과 극장을 지었는데, 이 극장은 2세기 후반 에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해안선을 보시면, 현재 남아있는 항만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에 아주 작은 방파제가 하나 있죠. 잠시 후 항공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헤롯의 항구와 비교해 보면 이 방파제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원형 경기장이 발굴된 곳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궁전이 발견된 곳입니다.

1970년대 이후로 많은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고 , 그 결과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현대식 방파제입니다.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공중에서 보면 거대한 방파제의 잔해와 항구 입구, 그리고 북쪽 면이 여전히 보이죠.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그와 그의 기술자들은 수중에서 시멘트를 붓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제조법이였다.

그들은 부석과 자갈을 사용했는데, 거푸집을 물속에 가라앉히고 이 재료를 부었습니다. 이 재료는 밀도가 높아서 물 위에 닿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굳어졌고, 그렇게 수중 시멘트처럼 굳어졌습니다. 요세푸스는 이것이 물속에 내려놓은 거대한 돌덩이라고 생각했지만, 고고학자들이 그 아래를 발굴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방파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항구를 준설할 필요가 없도록 내벽과 외벽으로 설계했습니다. 남서쪽에서 밀려오는 토사는 외벽의 틈새를 통해 중앙 부분에 쌓여 마치 포대처럼 기능하게 되고, 그 결과 항구는 준설 없이도 수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그 기초입니다. 아주 대략적인 사진이지만, 아우구스투스 신전의 기초 모습입니다.

여기서 원형 경기장도 볼 수 있습니다. 발굴된 곳인데, 지금은 동쪽 절반만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바다의 공격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곳 위의 궁전과 극장을 살펴보고, 그 두 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 가이사랴에는 깨끗한 물 공급원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이후 로마인 들은 도시를 확장하면서 카르멜

산기슭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수로는 바로 그 위쪽에 있는 수로입니다.

또한 물을 끌어오는 하층 수도도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콧 위의 궁전 지역에서는 설명문, 아니, 설명문과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다르게 말해야겠네요.

이것은 콧의 궁전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복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 티베리움이 있고, 여기에 필라투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흔히 빌라도 비문이라고 불립니다. 본디오의 교황 1세(IUS)도 여기에 있지만, 빌라도 역시 그곳에서 그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에 발견된 매우 유익한 사실은 누가복음을 쓸 당시 그가 인물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티베리움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된 신전입니다. 이제 극장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은 복원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좌석 부분이나 아래쪽에 원래 돌 조각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극장은 현재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진 너머에도 복원된 넓은 무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에는 극장이 일종의 광고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광고를 하고 싶으면 광고판을 세우는 대신 극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수많은 선전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파라는 왕이 나옵니다. 정해진 날, 헤롯은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백성들에게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왕이다. 그들은 모두 거기에 모여 있다. 아마도 그래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외쳤다. 이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헤롯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자, 주의 천사가 즉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서술 과정에서 이 사건이

간략하게 언급되고,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작게 나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즉 그가 유대 전역을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가이사랴에 와서 카이사르를 기리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선전이었습니다. 둘째 날, 그는 순은으로 만든, 참으로 놀라운 직조의 옷을 입고 이른 아침에 극장에 들어섰습니다. 마침 그 시각은 우연이 아니었을 텐데, 햇빛이 그의 옷에 반사되어 은빛이 놀랍도록 빛나기 시작했고, 그 눈부신 광채에 그를 자세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침꾼들이 그가 신이라고 외쳤다. 왕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불경스러운 아침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부엉이 한 마리를 보았고, 그 새가 불길한 소식을 전하는 사자임을 즉시 깨달았다.

그의 배에 극심한 통증이 일어났다. 그는 궁궐로 옮겨졌고, 곧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 그리고 그는 닷새 동안 복통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흥미롭게도, 헤롯 아그리파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헤롯의 의도는 로마 문화를 들여와 그가 보기에 매우 변두리 같은 시골 사람들을 변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가이사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고넬료로 시작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섬기기 위해 사람을 보냈고, 이 이야기를 통해 이방인이 신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어진 씨앗입니다. 바울은 그곳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가이사랴는 복음 전파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신약 성경 이야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잔틴 제국 초기에 가이사랴는 교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잔틴 시리아의 작은 지역, 가이사랴를 잠깐 살펴보다도, 이곳은 매우 부유한 곳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오리겐 과 에우세비우스 같은 교부들에게 중요한 활동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복음은 서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릴리 지방의 예수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엘레인 필립스 박사님께서 이스라엘 평야와 세펠라 지역에 대한 역사 지리학 첫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필립스 박사님과 남편 페리 박사님은 예루살렘 대학교와 고든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